정답

1	④	**2**	④	**3**	②	**4**	②	**5**	②
6	②	**7**	②	**8**	①	**9**	③	**10**	①
11	③	**12**	②	**13**	③	**14**	③	**15**	①
16	③	**17**	④	**18**	②	**19**	①	**20**	④

1. [형태론/합성어]
통사적 합성어란, 우리말의 통사 구성 방식에 맞는 합성어를 말한다. 즉 '명사+ 명사, 관형어+ 명사, 부사어+ 용언, 주어+ 서술어, 목적어+ 서술어, 용언(어간+ 어미)+ 용언'의 구조로 된 것이 통사적 합성어이다.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④이다.
④ 어린이 = 어리(어간)+ ㄴ(어미)+ 이(의존명사) / 가지(어간)+ 어(어미)+ 오다(용언)
[오답 풀이]
① 흔들(어간)+ 바위(명사) / 곶(어간)+ 감(명사) - 비통사적 합성어
② 새(관형사)+ 언니(명사) - 통사적 합성어
척척(부사)+ 박사(명사) - 비통사적 합성어
③ 기(어간)+ ㄹ(어미)+ 짐승(명사) - 통사적 합성어
길짐승: 기어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
높(어간)+ 푸르다(용언) - 비통사적 합성어

2. [형태론/품사 구별]
ㄱ. 큰다: 동사 / 그러나 '옥수수가 매우 <u>크다</u>'의 경우는 형용사이다.
ㄴ. 중시하지 <u>않은</u>: (보조) 동사 / '중시한다'가 동사이므로 '않다'도 동사이다. (예) 중시하지 않는다. / 그러나 '중요하지 <u>않은</u>'은 (보조) 형용사이다. '중요하지 않는다'는 성립하지 않는다.
ㄷ. 늙는: 동사 / '늙는'의 현재형이 성립한다. / 그러나 '젊은'은 형용사이다.

3. [문법/어법]
② 이 물건은 후보 공천 시점에 보낸 것인지도 모른다.(○) → '에'는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.
[오답 노트]
① → 가능한 <u>한</u> 충실히 논의해 왔다. / '가능한' 다음에 '한'이 와야 한다.
③ 고화질의 화면은 물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.(×) / '얻을 수 있다'의 목적어로 '고화질의 화면은'은 성립하지 않는다.
→ 고화질의 화면을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.
④ '생각이다'의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. / '~는 생각이다'를 생략하는 것이 문맥에 맞다.

4. [통사론/높임 표현]
② 당신: 2인칭 존칭 / 말씀: 겸양 표현 / 않으시는군요: 주체 높임
[오답 풀이]
① 집(×) → 댁(○)
③ 당신: 3인칭 극존칭 / 아끼던(×) → 아끼시던(○)
④ 청한(×) → 청하신(○) / 듣기 → 들으시기

5. [어휘/다의어]
자리: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고 난 후 남은 흔적 / ②가 같은 의미이다.
[오답 풀이]
① 자리: 조직체에서의 직위나 지위
③ 자리: 일자리나 혼처를 가리킨다.
④ 자리: 사람이나 물체가 차지하는 공간

6. [어휘]
㉡ 어르다: 여럿을 모아 한 덩어리나 한판이 크게 되게 하다.
'어우르다'의 준말.
㉢ 미구(未久)에: 오래지 않아 / 과세(過歲): 설을 쇰
㉣ 생광(生光)스럽다: ① 빛이 나다 ② 영광스러워 체면이 서는 듯하다 ③ 아쉬운 때 요긴하게 쓰게 되어 보람이 있다.

7. [문학/현대시 감상]
이성부 '봄' - 현실 참여적, 상징적 / 주제: 새 시대에 대한 확신
시의 화자는 시의 후반부에 나타난다. 10행까지는 '너'가 오는 모습을 그리고, 11행 이후 '너'를 맞는 '나'의 심회를 그린다.
너는 눈부시다. 너는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오는 사람이다. 나는 감격에 겨워 너를 껴안는다. ②는 전혀 해당이 없다.

8. [비문학/중심 내용]
이 글의 화제는 '한국 한자음'이고, 요지는 '한국 한자음은 한국어 음운 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가진다.'이다. 그러므로 주제는 '한국 한자음의 특성(특징)' 정도로 잡을 수 있다.

9. [비문학/문맥 파악]
주나라 목왕 때 창우라는 인형을 만든 언사에 관한 글이다.
이 문제는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. '그제야 인형의 실체가 드러났다'를 받는 글은 ㉢ 이후이다. 그러므로 주어진 글은 ㉢에 들어가야 맞다.

10. [비문학/내용 파악]
① 바흐는 가정을 꾸리기에 충분한 수입을 원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도 했다. → 처우를 중시함
② 칸토르직 7년째에 수입이 충분치 못해 다른 일을 하기도 했고, 그것이 계기가 되어 칸타타를 쓰지 않게 되었다고 했지만, 7년 정도 칸타타를 작곡했다는 내용은 아니다.
③ 모차르트가 사망하던 당일의 빈의 날씨는 궂었다고 하지만 기상대의 기상자료는 이와 다르다.
④ 작품 수준이 경제적 상황과 반비례했다는 결론은 지문에 없다.

11. [어휘/한자 표기]
㉠ 형태 形態(形 모양 형) / 型 모형, 본보기, 틀 형. 유형(類型), 모형(模型), 전형(典型)
㉡ 추방 追放(追 쫓을 추) / 槌 망치 퇴. 철퇴(鐵槌)
㉢ 유린 蹂躪(짓밟을 유, 짓밟을 린)
㉣ 정체 政體(政 정사 정): 정치적 체제. 국가 형태 / 正體(정체): 본래의 형체. 整體(정체): 지압이나 마사지 따위로 몸의 상태를 좋게 함.

12. [어문 규정/한글 맞춤법]
② 짐작하건대 → 짐작건대 / 야속하다 → 야속다
안울림소리 'ㄱ, ㅂ, ㅅ' 뒤에서 '하' 음절이 준다.
[오답 풀이]
① 뒷뜰(×) → 뒤뜰(○)
③ 처내고(×) → 쳐내고(○)
쳐내다: 깨끗하지 못한 것을 쓸어 모아서 일정한 곳으로 가져가다.
④ 덮힌(×) → 덮인(○)

13. [통사론/문장 성분]
③ 정부에서 (실시한) - 주어
[오답 풀이]
①, ②, ④는 부사어이다.

14. [통사론/피동의 남용]
③ 받아들여진(○) = 받아들이(어간)+ 어지+ ㄴ
피동 접미사 '-이, 히, 리, 기-'와 '-어지다'가 중복된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.
① 닫혀진: 닫+ 히(피동 접미사)+ 어지+ ㄴ(×) → 닫힌(○)
② 놓여진: 놓+ 이(피동 접미사)+ 어지+ ㄴ(×) → 놓인(○)
④ 끊겨진: 끊+ 기(피동 접미사)+ 어지+ ㄴ(×) → 끊긴(○)

15. [문학/시조의 주제/한문]
주세붕의 시조('오륜(五倫)'을 읊은 전 6수 중 부부유별(夫婦有別)을 주제로 한 시조) / 남편 공경 / 거안제미(擧案齊眉)
① 부부애이경지(夫婦愛而敬之) 상대여빈(相待如賓) - 부부는 사랑하고 공경하며 서로를 마치 손님처럼 대한다.(김시습의 '이생규장전')
② 생아자부모(生我者父母) 지아자포자야(知我者鮑也) -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,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.('사기' 관포지교)
③ 회도리지방원(會桃李之芳園) 서천륜지락사(序天倫之樂事) - 복사꽃 오얏꽃 핀 뜰에 모여 우리 형제들의 즐거운 일을 펼치니[이백의 '춘야연도리원서'(봄밤에 복사꽃 오얏꽃 동산에서 잔치를 베풀다)]
④ 삼고신어초려지중(三顧臣於草廬之中) 자신이당세지사(諮臣以當世之事) - 세 번이나 신의 오두막을 찾으시어 신에게 당세의 일을 물으시니(제갈량의 '出師表(출사표)')

16. [어문규정/띄어쓰기]
③ 떠날 밖에(×) → 떠날밖에(○) / '밖에'는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
그밖에(×) → 그 밖에(○) / '그 이외에'의 뜻이므로 '밖(명사)+ 에(조사)'는 띄어 쓴다.

17. [비문학/말하기 상황 추론]
'각 지역어가 가진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한 지역의 말만을 사용케 한다면' 이는 타 지역어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이 된다. 그러므로 각 지역어의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펼쳐지는 발화의 상황이다.

18. [문학/현대시 감상]
박남수 '새' - 주지시 계열. 현실 비판적, 상징적, 감각적. '순수'와 '비순수'의 대립적 구도로 인간의 잔혹성을 고발함. 시인의 감정 노출이 절제된 지적 경향의 시.
② 새는 '뜻'을 만들지 않으므로, '뜻'은 목적성을 의미한다. '납'은 비정한 물질문명을 상징하므로 '순수'와 대조가 되며, '뜻'과 대조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. 이 시에서는 순수의 상징인 '새'와 비정한 물질문명의 상징인 '포수'를 대립시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.

19. [비문학/문맥/접속어]
㉠ '실제로'라는 말은 '거짓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적으로'라는 뜻이다. 여기서는 솔직하게 말할 때를 나타내는 '사실(은)'이란 표현이 알맞다.
㉡ '이 경우 ~ ' 이하의 내용이 앞글과는 다른, 발전적 내용이므로 화제 전환에 해당하는 '그런데'가 적당하다. '그러나'는 앞 내용에 대한 역접의 접속어이므로 알맞지 않다.
㉢ '~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마찬가지로'라는 표현과 호응하여 '그리고'가 적합하다.
㉣ '요컨대'는 앞 내용의 중요한 점을 요약하여 말한다는 뜻이다. 이에 비해 '그러므로'는 인과 관계에 따른 결론을 낼리 때 사용한다. '국민' 의식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는 '요컨대'가 적절하다.

20. [어휘/한자성어]
주어진 글은 이강백의 '파수꾼'이라는 단막극 풍자극이다. 거짓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여 마을을 통제하는 촌장을 주인공으로 하여 1970년대의 권력층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다.
마을의 안전과 단결을 위해서 질서를 만들었다는 촌장의 논리는 ④ 牽强附會(견강부회 /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.)에 해당한다.
[오답 풀이]
① 指鹿爲馬(지록위마):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.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력을 함부로 부림.
② 釣而不網(조이불망): 낚시질을 할망정 그물로 고기를 낚지 않음.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만 취할 뿐 욕심을 부리지 않음.
③ 隔靴搔癢(격화소양): 신발 신고 발바닥 긁기. 무슨 일을 애써 하기는 하나 핵심을 찌르지 못함.